

## '된장 특화단지' 강진 군동 신기마을의 성공

# "못생긴 메주 팔아 부자마을 됐어요"

"미운" 메주 팔아 부자마을 됐어요."

조그마한 농촌마을인 강진군 신기마을이 전통 메주 판매로 대박을 터뜨렸다.

전남도와 강진군이 공동으로 지난해 12월 군동면 신기마을에 조성한 '된장 특화단지'에서 생산된 메주 1만여 박스(1박스 10kg)가 3개월만에 조기 품절됐다. 매출액만 5억원을 넘어섰다.

**백정자씨 등 부녀회원 합심 생산**

**3개월만에 5억원 매출액 올려**

65가구 주민 121명에 불과한 신기마을은 재래종 콩 주산지로 지난 91년부터 백정자(70) 회장을 비롯한 부녀회원 20여명이 전통 방식으로 메주를 생산, 판매해 왔다.

신기마을 메주는 매년 9월 수확한 콩을 가마솥에 장작불을 때 메주를 빚어낸 뒤 짚으로 매달아 발효시킨 전통 메주로, 서울 등 수도권 주부들의 폭발적인 사랑을 얻어냈다.



메주 판매로 대박을 터뜨린 강진군 군동면 신기마을은 전통 항아리 200개에 된장과 고추장 등을 보관, 맛과 품질을 업그레이드 했다.

강진군은 지난해 신기마을에 전통 장류를 생산하는 된장 특화단지를 조성했다.

모두 8억 7천만원을 들여 조성된 된장 특화 단지에는 현대식 건축물에 전통미가 가미된 메주가공공장 1동과 전시 판매장 1동, 기계 장비류 18종 26대 등이 들어섰다.

또 강진군 칠량면 철운석 용기장이 만든 전

통 항아리 200개를 구입, 된장·고추장·간장 등을 보관해 맛과 품질을 업그레이드 했다.

특히 신기마을은 순수 100% 친환경 국산 콩만을 사용해 주부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

이같은 친환경 방식으로 빚어낸 메주의 맛이 입소문을 타고 수도권 등에 알려지면서 신기마을 메주 마니아가 생겨났을 정도다.



백정자 회장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단골 고객들이 너무 많아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메주를 구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기마을 주민들은 요즘 메주에서 시작된 부농

**100% 친환경 국산 콩 사용**

**전통방식으로 맛·품질 향상**

의 꿈을 한 단계 높이는 프로젝트를 구상중이다.

다산초당과 백련사, 미량한 등 '남도답사 일번지'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메주 빚기, 된장 담그기 등 이벤트와 먹거리로 갖춘 농촌체험관으로 키워나간다는 계획으로, 메주산업을 관광산업으로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나주 농협직원 대가성 외유 '말썽'

배 성장축진제 회사로부터 경비 지원 받아 中 다녀와

나주지역 배 주산지의 농협 직원들이 원받아 외유를 다녀온 것으로 드러나 말씀을 빗고 있다.

더욱이 이번 외유는 나주시가 명품 배 육성을 위해 사용 자제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성장축진제를 판매해 준 대가여서 농협이 고품질 배 육성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나주지역 4개 농협의 농자재 담당 직원과 관련 업체 관계자 등 10명은

지난달 18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중국을 다녀왔다. 이들은 단통과 선양, 다롄 등의 주요 관광지를 돌려봤는데 외유 경비로 2천여만원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여행 경비를 지원한 업체는 성장축진제로 잘 알려진 이른바 '지베렐린'을 판매하는 회사로, 시와 배농가는 이 성장축진제 사용 자제를 농정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업체는 수년전부터 농협 측에 농자재 위탁판매를 의뢰한 뒤 판매실

적에 따른 보답 성격으로 외유 등을 지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농협 관계자는 "앞으로 농자재 관련 업체의 지원 연수를 즉각 중단하겠다"고 해명했다.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관련 업체에서 금품이나 향응, 외유 접대 등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조만간 진상 조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jung@

## 화순 '숲 가꾸기 사업'이 문화재 구했다

**운주사 둑산 산불 불구**

**외불 등 화마 피해 없어**

'숲 가꾸기 사업'이 소중한 국보급 문화재를 구했다.

지난 6일 운주사 주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사찰 주위를 모조리 태웠는데도 사찰과 국보급 문화재가 화마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은 화순군이 지난해부터 펼쳐온 숲 가꾸기 사업 덕분이었다.

화순군은 지난 2005년 낙산사 화재사고 이후 운주사와 쌍봉사

등 사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숲 가꾸기 사업을 벌여왔다.

화순군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 까지 운주사 주변 숲에 괴밀하게 심어진 나무를 베어내고, 소나무 가지치기, 껌풀 제거 등을 완료했다.

그 결과 산불이 운주사 주변을 덮쳤는데도 사찰과 주변 건물과 외불 등 국보급 문화재는 화마의 피해를 면하였다.

진화작업에 나선 소방관계자들

도 "숲 가꾸기 사업이 잘 돼 있어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 함평 익스포 성공 기원 걷기대회

함평군은 지난 4일 '2008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한 건강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4천여명의 군민들은 익스포 대회장 일대 3km를 걸으며 성공 개최를 기원했다.

/함평=박진표기자 pyj@4079@

## 강진 관광기념상품 브랜드 '1300°C'

고려청자 굽는 온도 형상화



에서 청자의 아름다운 비색으로 변하는 단계를 시각화했으며 숫자 1300의 '0'에 각각 다른 청자의 색을 담아 청자의 아름답고 미묘한 비색을 표했다.

경진군은 7일 "청자고장의 군 이미지를 강조하고 타 지역과의 차별화를 위해 관광기념상품 브랜드를 고려청자 소성(굽기)온도인 '1300°C'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숫자를 브랜드로 형상화시킨 경우는 매우 이례적으로 이 브랜드는 8개월 작업끝에 완성됐다.

숫자 바탕에 단계별 색상은 고령토

/경진=박진표기자 lucky@

## 해남 '호박 고구마' 북한서도 재배

재배 기술 등 보급 식량난 해소 기대

해남의 명물 '호박 고구마'가 통일 고구마로 거듭난다.

해남군은 오는 10일 북한을 방문, 현지에서 고구마 교류 사업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민간단체인 '남북농업발전협의회'가 추진하고 해남군이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2010년까지 3년간 북

한에 해남 고구마의 시험배는 물론 고구마 묘 생산, 조직배양 등의 기술지원과 함께 시설이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해남 고구마의 뛰어난 맛과 함께 선진 재배기술이 북한에서 뿌리 내리게 되면 식량난 해소 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밝혔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 담양 남도대학 미용학과

10개월간 자원봉사 활동

담양 남도대학 학생들이 10개월간의 자원봉사 대장정에 들어갔다.

남도대학 토탈뷰티미용학과 학생 40여명은 담양군과 협약을 맺고 지난 달부터 마을 급식 경로당에서 자원봉

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2일에는 고서면 주산리 일신 원류급식경로당과 남면 인암 급식경로당에서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미용 서비스와 함께 밭 마사지 봉사활동을 벌였다. 남도대학 학생들은 오는 12월까지 담양군 12개 읍·면을 돌며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한다.

/담양=정필수기자 bun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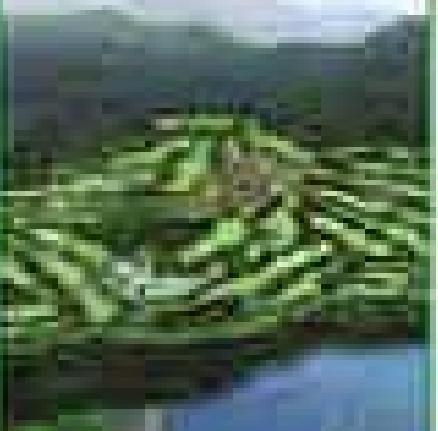
## 나주시의 농축면

# 중흥 글드레이크 외원권 분양·상담

## 글드레이크CC

글드레이크CC  
제한·법연·남부

글드레이크  
개방·법연



## 글드스파클리조트

글드스파클리조트  
10·28·38·57월별

글드스파클리조트  
(한국·법연)  
10·28·38·57월별



## 글드레이크밸리자

글드레이크밸리자  
10·28·38·57월별

글드레이크밸리자  
10·28·38·57월별



## 전통운세

060)700-3657

젊은 여성·기업을 당당하게  
맞는 최고의 날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삶을 때  
당당하게 맞는 확장을 전합니다.

젊은 여성·기업을 당당하게  
맞는 최고의 날을 알려드립니다.